

나주목사막걸리·프랑스 영사 샴페인 외교...172년 전 비금도 조명

나주시청서 21일 오후 2시 한·불 학술 포럼 개최

주한 프랑스 대사 등 참석...“우호·교류 초석 되길”

막걸리와 샴페인의 첫 만남으로 비유되는 172년 전 조선시대 나주와 프랑스(한·불) 관리의 우호적인 만남을 기념하는 학술 포럼이 열린다.

나주시는 한·불 양 국가의 외교적 첫 만남의 계기가 됐던 1851년 프랑스 선박의 비금도 표류 사건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학술 포럼을 21일 오후 2시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연다.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한·불 학술 포럼’은 그간 알고 있던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사의 관을 바꾸고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한·불의 공식적인 첫 만남은 병인양요도 조불 우호 통상조약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양 국가의 첫 만남은 1866년 프랑스인 신부가 처형된 것을 빌미 삼아 프랑스가

함대를 이끌고 조선의 강화도를 공격했던 사건인 ‘병인양요’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병인양요보다 15년 앞서고, 조불 우호 통상조약보다 35년이나 앞선 1851년 한국(조선)과 프랑스가 첫 외교적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프랑스의 한 교수에 의해 밝혀져 화제가 됐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프랑스 파리7대학 피에르 엠마누엘 후 교수에 따르면 1851년 프랑스의 고래잡이배 나르발호가 전라도 연안 근처에 좌초되면서 선원 20여 명이 표류돼 비금도에 도착했다.

불행한 소식을 접한 중국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 ‘샤를 드 몽티니’는 선원들을 구출하고자 비금도를 방문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선원들은 조선인들의 극진한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사진 좌측은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기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유물 제1호 용기주병. 이 병은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인 1851년 비금도에 표류한 선원들을 보호해준 조선의 인도주의적 우호에 감사하는 의미로 나주목사 이정현과 기념 만찬을 가진 중국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 ‘샤를 드 몽티니’가 자국으로 가져가 기증했다. 사진 우측은 조선시대 이정현 나주목사 선정비. (사진=나주시 제공)

당시 비금도(신안군)는 전라남도 일대를 관할했던 나주목의 나주제도(羅州諸島)에 속했다. 이에 몽티니 영사는 귀국 전날인 1851년 5

월 2일 나주목사 이정현과 자국 선원들을 잘 보살펴준 조선의 인도주의와 우호에 감사하는 기념 만찬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서 이정현 나주목사와 몽티니 영사는 조선의 전통술과 프랑스의 샴페인을 함께 나눠 마셨다. 만찬 이후 몽티니 영사는 용기주병 3병을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 세브르 국립도자기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용기주병은 현재 해당 박물관에 한국 유물 제1호로 소장돼 있다.

해당 사건은 한국과 프랑스의 첫 교류가 평화롭고 우호적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작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

주한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은 지난 5월2일을 한·불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날로 정해 올해 처음으로 파리 세브르 국립도자기박물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박물관은 172년 전 그날 한국 전통술을 담은 용기주병을 특별 전시했고 이 소식이 나주에도 알려졌다.

나주시는 이번 학술포럼에 주한프랑스대사관 요한 르 탈레 문정관, 피에르 엠마누엘 후

교수와 오영교 한불통신 대표 등을 초청했다.

172년 전 한·불의 첫 만남의 계기가 된 비금도 표류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불 교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프랑스 대사를 비롯해 전남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비롯해 국제 문화 교류 관련 기관·단체, 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학생·교사, 이정현 나주목사 후손 등 각계각층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관내 보존돼있는 1851년 당시 조선의 대리자로 기록된 이정현 나주목사의 선정비를 소개하고 2023년 양국의 재 만남을 기념해 172년 전 첫 만찬에 사용됐던 용기주병을 재현해 전시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한·불 양국 외교사를 새롭게 바꿀 172년 전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자 하는 나주시민의 노력이 한·불 양국의 우호와 교류의 초석이 되길 소망한다”며 “내년에는 프랑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전남에서 제일 예쁜 정원, 장성군에 있네”

전남 예쁜 정원 콘테스트, 장성군 진원면 ‘초원’ 대상 수상



‘초원’을 조경한 정원주(중앙), 안병욱(좌측) 씨와 아들 내외, 손자

장성군 진원면 ‘초원’이 ‘2023년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대상을 수상했다. 14일

‘초원’에서 시상식을 연 전라남도는 현판과 상장, 소정의 상금을 수상자들에게 전달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정원 잡지사 ‘월간 가드닝’에서 후원한 올해 ‘전남 예쁜 정원 콘테스트’는 개인주택정원과 근린정원 2개 부문에 총 59개소가 응모했다.

정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디자인, 소재의 다양성,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장성군 ‘초원’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원’은 이름 그대로 푸른 초원의 매력에 오롯이 느껴지는 정원이다. 상록수와 잔디, 교목, 조화류를 입체적으로 배치해 관람객에게 시각적 감동과 정서적 편안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초원’을 조경한 정원주, 안병욱 씨는 퇴직 후 20여 년간 정원을 조성해 왔다. 사진 촬영을 하며 습득한 구도와 색채 활용 감각을 정원 조성에 녹여내 가치를 높였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오랜 시간 묵묵히 정원을 가꿔 온 정원주, 안병욱 님의 땀방울이 오늘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수상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곡성군 노인회, ‘할아버지와 함께해요!’ 교육 실시

2023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아파 어르신 행복배달 왔다!’ 프로그램

곡성군은 지난 11일 곡성군사회복지회관에서 2023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아(름답고) 따(뜻한) 어르신 행복배달 왔다!’ 사업의 일환으로 ‘살아있는 곡성의 역사와 마음이기, 할아버지 함께해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곡성군노인회(회장 심정섭)가 주관하고 곡성문화원(원장 조준원)이 협업하여 진행하였으며, 곡성읍 소재 아동센터인 곡성지역아동센터, 꿈내래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아동 67명이 참석

했다.

교육은 심정섭 노인회장의 인사말씀과 곡성군 노인대학장의 삶의 지혜 이야기, 곡성문화원장의 실감 나는 곡성 이야기로 진행되었다.

고영길 노인대학장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동요와 엮어 풀어냈으며, 조준원 곡성문화원장은 ‘살아있는 곡성 이야기’를 통해 곡성의 역사와 인물에 대해 쉽게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곡성=양해영 기자

담양군, 오지마을 대상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추진

담양군이 농한기를 맞아 오지마을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위해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순회 수리는 용면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거와 안전교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49대의 농기계(예취기, 엔진톱, 분무기 등)

를 수리·정비했으며, 53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도 함께했다.

군 관계자는 “오지마을 거주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적기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